



일제강점기 학동 간호기숙사(백학사)와 도라지동산(전대간호교육100년사2013).



올해 2월까지 5천165명을 배출한 전남대학교 간호대학(향토지리연구소2023).

1912년 광주자혜의원 견습생 4명 입소

김경수의 광주 땅 '최초' 이야기

〈91〉간호·보건기관



학동 전남대 간호대학 서편 나이팅게일선서상(향토지리연구소2023).

2019년 6월 방림동 38번지에 광주시간호사회관이 설립됐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관내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2만780명, 회원은 9천941명이다. 광주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간호사는 9천738명, 간호조무사는 7천752명이다. 5개 자치구 보건소 인원 520명 중 227명이 간호사다. 4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 입학정원은 전남대 88명을 포함해 12개교, 1천867명이다.

광주 최초 간호부 양성은 1912년 광주자혜의원 견습생 4명 입소기록이다. 1914년 7월5일 지상보도, 간호부 생도 모집과 관련된 기사로 2년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의원연보 말미 역대직원 명단 중 '간호부와 생도'로 최혜순과 박옥진의 취입이 1912년 8월23일임도 단서다.

2013년판 전대간호교육 100년사를 본다. 자혜의원은 1924-1939년까지 157·419명 학생을 배출하고, 광복 이후 광주의학전문학교부속병원에 중학과정으로 개칭한다. 1946년 광주과대학부속 간호학교로 승격, 1948년 3년제 고등간호학교, 1952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고등기술학교가 된다.

1962년 초급대학 과정에 준하는 간호학교, 1972년 간호전문학교, 3월 4년제 간호학과 (30명)가 별도로 탄생한다. 1986년 2월 간호전문대학은 폐하고, 간호학과 정원을 70명으로 늘린다. 1988년 60년 약사 발행, 1988년 간호학박사학위과정 개설, 2005년 간호대학으로 승격한다.

현 대학본부는 치의학관을 리모델링, 2010년 7월 뜬 곳으로 1915년 학동 4번지는 3천28㎡이다. 도라지동산(65㎡)은 산218-2번지로 1963년 12-7번지 대지 1천874㎡으로 전환된다. 1956년 2월 연면적 893㎡은 전국 유일 간호학교 독립건물이 선다. 서편 간호기숙사·식당은 12번지 발 1만1천957㎡로 1923년생 목조2층기와집을 1961년 12월 연면적 235·35㎡으로 증축한다. 1966년 연면적 674㎡ 간호원기숙사 3차가 준공된다. 2013년 개관한 간호역사관은 구분관(의학박물관) 3층에 있다.

1930년대 경전선철길로 조대장레식장에서 내려선 등성은 폭(別)뫼가 됐다. 도라지동산은 지금 학마을터, 오르는 계단길은 백학로(白鶴路)라 부른다. 73학번 박인혜 3대(2008-2010)학



방림동 광주간호회관(광주간호사회회관)개식.

1945년 광주의학전문학교부속병원 중학과정 거쳐 전남대 간호대로 기독간호대·조선대·보건대·서영대·동강대·광주여대 등 인력양성도 1951년 도립광주보건소 출발...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잇따라

장을 만났다. 의과대학 구도서관터, 간호전문대 강당은 지금 제2주차장터가 됐다고 전한다.

간호대(현입학정원)는 1966년 기독간호대(168), 1969년 조선대(80), 1981년 보건대(137), 1986년 서영대(201), 1994년 동강대(181), 1997년 광주여대(124), 2003년 남부대(215), 2006년 호남대(160), 2010년 광주대(200), 2011년 조선간호대(193), 2012년 송원대(110)도 생긴다.

엘리자베스 셰핑(Elisabeth J. Shepping1880-1934)은 1912년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로 온다. 서서평(徐徐平)은 독일생으로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다. 1926년 로이스 니일(Lois Neel) 원조로 양림동 102-52번지에 적벽돌 3층 이일(李一)학교를 세운다.

1923년 대한간호협회를 창설하고, 1929년 세계간호협회에 가입한다. 저서로 우리나라 최초 간호교과서를 포함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간호사업사 번역서가 있다. 조선간호부회 초대회장을 지낸 그녀는 13명 양팔과 한명 양아

들도 입양했다.

동구보건소는 서석동 31번지 동구청 남동편에 있으며 인원은 111명이다. 1951년 10월 총장로 37가 33번지에서 도립광주보건소로 출발한다. 1962년 말 광주시보건소, 1975년 2월 계림동 505-90번지 광주시청내 동구보건소로 자리한다.

1986년 11월 계림동 504-114번지, 1991년 장동 55-1번지를 거쳐 1996년 현 위치로 이전하고 2005년 확충공사로 재배치한다. 물리치료실은 1990년 학동 721번지에 설치, 1996년 901-308번지로 옮기고, 1995년 지산동 691-41번지 실은 2003년 폐쇄한다. 소태동 486-1번지 복합커뮤니티센터2층에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다.

서구보건소는 경영로 서구청 북서편에 자리하며, 정규직원은 172명이다. 1975년 농성동 641-6번지에 시작, 1981년 농성동 269-6번지로 신축 이전한다. 2011년 9월 지금 신청사로 옮긴다.

1995년 용두동 637-6번지와 매월동 460-8번지 용두·매월보건진료소를 편입한다. 2005년 쌍촌

동 1003-3번지 상무금호보건진료소, 2014년 쌍촌동 1229번지 쌍촌주공아파트내 사회복지관에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남구보건소는 백운광장 남동편 남구청 5층에 위치한다. 1998년 3월 봉선동 516번지 연면적 3천 196㎡(지하 1층·지상 3층)에서 나선다.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월산동 190-4번지에 2016년 6월 개소한다. 2011년생 주월동 974-180번지 주월센터도 있다. 노대동 737번지에는 2020년 6월 치매안심센터가 등장한다.

보건진료소는 1981년 10월 구소동 129-1번지와 1984년 화장동 782번지에 연다. 구소는 1997년 대지면적 660㎡에 건축연면적 2705㎡ 세벽조 건물로 신축하고, 2층은 건강증진실이다. 화장은 1999년 대지·건축연면적 245·192㎡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2층집이다.

북구보건소는 북구청 남쪽 중흥동 359번지 건축·연면적 318·1천901㎡(지하 1층·지상 5층)에 168명이 근무한다. 1980년 용봉동 239-2번지에 개소한다. 1990-1991년 중흥·문흥동 물리치료실 개설, 4월 1천320㎡의 신축청사로 이전한다. 2005년 1월 현 위치로 오고, 2009년 두암보건진료소를 두암동 825-13번지에 세운다. 본촌동 3036-1번지에 도센터가 있다.

광산구보건소는 올해 5월 현재 흑석동 631번지 하남3지구주민복합시설에 입주해 164명이 근무하고 있다. 1963년 전남 광산군 보건소로 송정동 875-5번지를 거쳐 756-1번지에 개설된다. 1974년 828-1번지(공회당), 1978년 756-1번지로 옮겨 연면적 1천223㎡ 지하 1층·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로 건립한다.

1981년 10월부터 보건진료소(지번)가 명화(225-3)·동호(877-2), 1984년 10월 광산(109-1)·양동(458-18), 1985년 10월 신흥(328-1), 1986년 7월 신흥(410)·산수동(586-9)에 차례로 나타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09년 수원동 936번지, 2015년 우산동 1602-3번지에 보인다.

근자에 국회 상정된 간호법은 제정이 무산됐다. 4년제 간호학과 졸업생으로 국가고시자격증 소유자 62만 간호사가 국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법입법을 요구했다. 의료계 계층 갈등, 그 피해자는 바로 시민이다.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문학박사

광주매일신문 '학교폭력에방문화조성' 연중 캠페인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발전방안협의회'를 가동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 온 광주매일신문은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합니다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